

# 山蔘이란 무엇인가?

-山蔘의 神密을 벗긴다-

## 山蔘이 세상에 알려진 年代

약용으로서 인삼을 뜻하는 ‘蔘’자가 처음으로 문헌에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약 2천여 년 전이다. 그것은 전한후기(前漢後期)에 사유(史游)가 쓴 ‘급취장(急就章)’에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약 2백여 년 앞서 이미 중국 서북부 지방에서 나무와 대조각(竹簡)에 인삼을 사용한 처방이 생생하게 기록된 것이 발견된 일도 있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바 있다.

196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류의 기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화석인(化石人)은 1950년대에는 1백만 년, 1960년대에는 2백만 년, 1970년대에는 3백만 년 전으로 크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과거에 발견되었던 인류의 화석보다 더 오래된 것이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들이 드러남으로써 이에 따라 인류의 출현연대가 수시로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산삼이 알려진 연대는 어떤 문자나 그림으로써 표시된 시대를 기준할 것이 아니라, 멀리 선사(先史)시대에 인류가 산야에서 식물을 채집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옳을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풀다(Fulder Stephen)박사는 산삼이 세상에 알려진 연대를 5천 년 전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 식물을 식별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이용한 것은 선사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삼이 인류에게 알려진 연대는 적어도 1만 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인류가 존재하면서 질병이 생기게 되었고, 질병이 생기자 그것의 치료법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이 발로되었다. 그리하여 원시적 의약으로 예민한 육감에 의하여 약초 등을 본능적으로 응용처리하거나, 혹은 샤먼(shaman)의 도움으로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러한 원시적인 약물의 사용이 지나긴 세월을 경과하면서, 비로소 일반적인 약제로 사용하게 된 숨은 역사를 계산에 넣고서 인삼이 사람에게 알려진 연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삼을 동양의학적으로 치료약이나 본초(本草)로 사용한 것은 후한 시대(後漢時代),

AD196~220) 장중경(張仲景)이 쓴 '상한론(傷寒論)'에서 비롯된다. 1백3방의 처방 중 인삼을 사용한 처방이 21방이 있음을 본다. 이것이 인삼이 의약관계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것이다.

그럼 서양에 인삼이 알려진 것은 언제인가를 보자.

이탈리아 사람 마르코 폴로(1254~1324)가 쓴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에는 아직 인삼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1692년에 네덜란드 사람 니콜라스가 지은 '동북달단기(東北撻撻記)'에는 인삼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그 후 중국에 파견된 프랑스의 자톡스신부가 북경에서 인도와 중국의 총회계계(總會計係) 사제(司祭)에게 보낸, 1711년 4월 12일자 서한에서 인삼의 생태와 약효를 스스로 관찰 또는 체험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 서한은 그 후 1714년에 수기로 간행되었다. 이 수기에서 달단인삼의 여러 가지 신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들의 주님의 평안이 귀하에게 베풀어지길 바랍니다. 중국황제의 명에 의하여 우리들은 달단(현재의 중국 동북부 지방과 만주지방으로 고구려시대에는 고구려영토임) 지방의 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측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유럽에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인삼이라는 신기한 식물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1709년 7월에 우리들은 조선국에서 불과 40리 거리의 '갈카라'라는 달단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의 한사람이 근처 산에서 4뿌리의 산삼을 캐내어 광주리에 담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중 한 뿌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세밀하게 스케치한 것을 지금 보내드리며 그림의 설명은 이 편지의 말미에서 하였습니다.

중국의 의학대가(大家)들은 산삼의 효능에 관한 많은 저서(著書)를 내고 있으며,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의 약에는 거의가 전부 산삼이 배합된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서민들은 감히 구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산삼은 심신과로(心身過勞)로 인한 피로의 회복에 대한 최고의 약품이며, 담(痰)을 녹이고, 폐와 늑막을 튼튼하게 하고, 구토를 멈추게 하며, 위(胃)의 기능을 강화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며, 상기(上氣)되는 것을 해소시키며, 가슴의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의 난조(亂調)를 고치고, 정기(精氣)를 강화하고, 혈액 속에 임파액(淋巴液)을 만들며, 현기(眩氣)에도 효능이 있고, 노인의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산삼이 이 같은 효능이 없는 것이라면 중국인이나 달단인이 산삼뿌리를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하

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산삼을 복용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약학을 아는 유럽인들의 수중에 산삼이 입수되어 실험을 하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성능을 조사하여, 실제로 병에 대해서 임상실험(臨床實驗) 등을 한다면 분명 산삼이 훌륭한 약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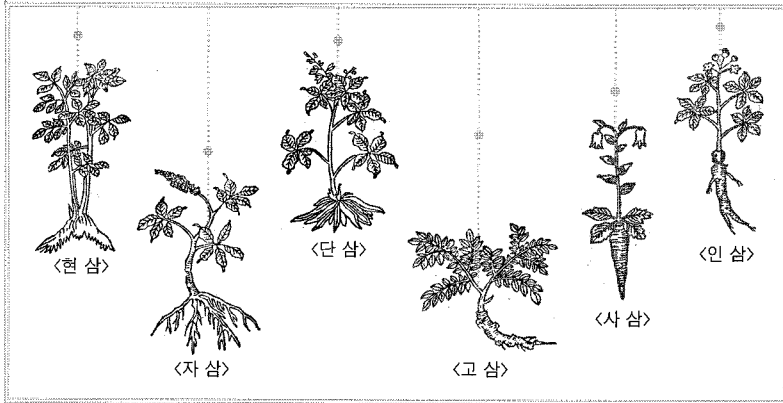
틀림없는 사실은 산삼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덥게 하며 소화기능을 도와서 원기를 현저하게 증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삼뿌리를 스케치한 후에 뿌리의 절반을 날것으로 먹은 뒤 1시간이 지나서 맥(脈)을 짚어보았더니 맥박이 훨씬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욕이 증진되고 전보다 훨씬 원기가 좋아졌습니다.

노동능력도 전에 없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휴식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크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일 후 저는 픽 지쳐서 말산등에도 올라앉아 있기가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상태를 눈치챈 관원(官員) 한 사람이 저에게 산삼 한 뿌리를 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반을 먹었는데 1시간 후에는 피로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후로는 산삼을 자주 먹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뿌리뿐만 아니라 신선한 잎을 먹어도 대체로 같은 효과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달 단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약 대신 산삼을 달여 먹었습니다.

이 산삼차가 어떤 차보다도 좋고 두세번 마시면 향기도 아주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인삼이 만약 세계의 다른 곳에서 생산될 수 있다면 어디보다도 먼저 캐나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캐나다의 산림지대나 산이 달단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중략

마르티니신부가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여 산삼이 중국에서도 산출된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달단인들이 산삼을 오르호다(Orhoda), 즉 식물의 왕자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 문헌에는 산삼이 북경성 영평부(永平府)의 산중에서도 발견된다고 했으나, 그것은 산삼이 달단

에서 중국으로 들어올 때 우선 도착되는 곳이 영평부이기 때문에 착각인 듯합니다.

신부님! 제가 중국에서 이렇듯 귀물(貴物)로 되어 있는 산삼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귀하를 즐겁게 하는 동시에, 귀하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즐겁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략

이 서간문이 그 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거주하던 프랑스 선교사 라프테우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그 기록 가운데 들어있는 산삼의 그림을 모호크족인 미국 토인들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들이 즉시 알아보고 숲속에서 이 식물을 채취해 왔다고 한다. 그 해가 1716년이였다.

신부는 채집한 산삼의 표본을 본국 프랑스에 보내어 감정케 하였던 바 그것이 고려인삼의 변종(變種)인 미국인삼임이 밝혀졌다.

이 발견이 계기가 되어 캐나다 및 북미동부에 인삼밭이 일어나 한 때 미국 농민들의 황금식물로 크게 각

광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북미 및 캐나다 지방에 살고 있던 오지부위 또는 알곤키안 트리베스(Ojibwas or Algonkiantribes)라고 하는 토인들은 산삼을 장수약 또는 고통을 없애주는 약으로 사용하여 온 전통이 있었다. 인삼의 약효를 가장 먼저 발견한 민족은 물론 한민족이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들로부터 산삼의 약효를 배워갔고 또 진짜 산삼을 무역 상품으로 수입해 갔다.

어떻든 우리의 조상이나 중국 사람들이 인삼을 영약(靈藥)으로 숭상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캐나다나 북미의 원주민이나 인디언들도 옛날부터 산삼을 약초로 알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들은 이것을 가아렌트 오퀸(garent oquen-인간의 발)이라 하여 귀중하게 여겼다. 북미 인디언 '수' 족들은 산삼의 뿌리를 독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 상아(象牙)와 같이 반투명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만큼 북미의 원주민들이 산삼을 오래 전부터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라프테우신부가 미국인삼을 발견한 것은 금광을 발견한 것과 맞먹는 거사였다.

그도 그럴 것이 캐나다의 퀘벡 지방에서 단 2프랑에 구입한 삼이 중국 광둥(廣東) 지방에서는 25프랑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1751년 프랑스의

대기업이 미국 야생인삼의 독점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1753년에는 무려 55톤이나 되는 미국인삼이 광동삼(廣東參) 또는 화기삼(花旗參), 양삼(洋參)이라는 이름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인삼의 중국 수출의 역사가 1백여 년에 가까워지자 중국에서는 미국인삼이 고려인삼에 비하여 약효가 훨씬 뒤진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고, 끝내는 미국인삼의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그 당시 일본에서도 미국인삼을 수입해 왔으나 점차 약효 없는 인삼으로 낙착되어 막부(幕府)시대에 이르러 수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

## 山參과 神仙의 음식

천년 묵은 동자(童子)산삼을 먹고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나 신화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 신선, 즉 선인(仙人)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체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만이 살고 있다는 선경(仙境)에서 사는 이들을 말한다.

선경에는 맛있는 술과 노래와 춤 그리고 선녀(仙女)들이 있다. 신선들은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불

로장생하며, 시공(時空)을 초월, 무차원의 세계를 마음대로 다닌다.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으며, 마음먹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인간 세상에 나타나 좋은 일을 하며, 선행을 칭찬하고 악행을 징계하며 무차원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 전설에는 '신(神)은 죽지 아니한다'는 사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선관은 특히 고대 중국의 노장사상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상에서 유래된 미라의 개념과는 다르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러한 신선관에 입각하여, 동해의 삼신산(三神山)에 살고 있는 신선들은 죽지 아니하는 불사약(不死藥)을 먹고 산다는 방사(方士)들의 주장을 크게 믿어왔다. 선남선녀 3천명과 유명한 방사 서복(徐福)으로 하여금 불로초(不老草), 불사약을 구해오도록 삼신산에 보낸 진시황(秦始皇)의 고사는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가장 뚜렷한 예의 하나이다.

AD283부터 343년간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나, 그보다 약 3백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선인의 전기들 수록한 '열선전(列仙傳)'이나 '신선전(神仙傳)'에는 신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

떤 특수한 훈련을 쌓으면 될 수 있다는 사상은 우리나라(동해의 삼신산)에 불사약을 구하러 보낸 중국의 진시황 이전부터 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어 방사들을 궁중에 불러들여 그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그들로부터 신선이 되는 도술(道術)을 배웠다.

방사란 동남아시아, 북미, 시베리아 및 우랄알타이계의 여러 민족에 특유한 원시주민의 종교현상에 기인하는 주의(呪醫), 승려(僧侶), 사자(死者)의 혼을 저 세상에 인도하는 샤먼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샤먼은 사람들을 신선으로 인도하고 병을 고치고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을 주관하고 죽은 자의 혼을 저 세상에 인도하는 안내자의 구실을 했다. 샤먼은 통구스어의 샤망(무당)에서 유래되고 있다.

그들은 옛날로부터의 전승(傳承)의 수호자이며 미개사회의 현자이며 신적인 존재이다.

방사들이 신선이 되기 위해 먹는 음식물은 주로 광물질이 많았으며, 이러한 선도(仙道)는 본초학(本草學)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나, 반면에 금, 은, 운모, 수은 등을 불로장생의 신단(神丹)이라 하는 등 나쁜 폐단도 남겼다.

불로장생의 선인식(仙人食)으로서의 식물성 약제에는 인삼을 비롯하여 잣, 복령, 계피, 지황, 맥문동, 송엽, 구기, 창포, 대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